

報 道 資 料

2004.3.25(목) 조간부터 보도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題目 :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

1. 재정부·전라남도·경상남도는 2004.3.24(수) 광양만권경제자유
구역청을 발족하고, 광양만권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를 본격화 함

◆ 개청식에는 경제부총리, 해수부장관,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,
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, 전남지사, 경남지사권한대행,
해당 시장, 군수, 지역경제인 등 150여명이 참석함

◆ 이날 이헌재 경제부총리는,

-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동북아경제중심을 지향하는 거점이며,
특히 광양만권개발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정부가 추진
하는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
- 아울러, 2006년까지의 1단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, 지역
주민, 정부, 투자가 모두에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
성공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당부함
- 특히, 국가지방이 합심, 범정부적 노력으로 2012년 세계박람회의
성공적 유치를 약속함

◆ 초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맡게 된 백옥인 청장은 업무
보고를 통해,

- 광양만권이 인천, 부산·진해와 3각축을 이루어 우리나라가
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견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
-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·추진하되,
- 우선 항만과 율촌1산단을 중심으로 2006년까지 혁신동력을
창출하겠다고 밝힘

2. 광양만권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
같음

- 3대 기본구상, 6대 성공적 추진과제 -

(1) 3대 기본구상

- ① 광양항의 넓은 배후부지(122만평, 여의도면적의 1/2)를 활용, 가공·조립을 겸한 부가가치 창출형 물류거점으로 조성
- ② 울촌산단 등에 자동차·조선·기초소재 산업을 육성하여 대일본·중국의 전초기지로 활용
- ③ 지리산 · 남해안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국제적인 해양종합리조트단지를 조성

* 계획인구 : 22만명, 면적 : 2,691만평(전남 2,311, 경남 380)

(2) 6대 추진과제

- 장치산업 중심의 고립적 산업구조로 연관산업의 집적효과가 낮아 local 물동량 창출이 미흡, 이는 항만경쟁력을 약화시켜 물류인프라 확충을 저해하는 악순환 초래. 이에 6가지 성공적 추진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 제시

① 항만시설의 확충과 화물유치

- 현재 8선석인 광양항에 '04. 6월까지 4선석을 추가, '06년까지 16선석 확보(2011년까지 33선석)
- '04.말에 끝나는 선박입항료 및 접안료 감면기간을 '06년까지 연장, 환적화물 하역료를 10~50%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 5,000천평 규모의 선원휴양시설(Seamen's Club)을 건설
- 금융, 숙박, 국제회의장 등을 갖춘 20층 규모의 광양항 Marine Center를 2006년까지 완공(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)

② 항만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

- 권부두 CY부지 10만평을 물류부지로 전용하고, 동측배후부지에 10만평을 '06년까지 추가 조성하여, 물류부지 20만평 확보
- CY부지 10만평 및 배후부지 전체(59만평)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('04.7),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, Target 다국적 물류기업에 10년동안 무상임대, 선도기업과 물동량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에 년2,400~8,000원의 낮은 임대료를 적용
- 재정부, 해수부, 구역청, 해당 지자체, KOTRA 등이 협력, 유럽('04.5), 일본('04.6), 미주('04.하반기) 지역에 대해 공동IR을 실시

③ 배후수송망 확충

- 광역수송망을 확충하여 내륙과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, 구역내 수송망 구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물류병목을 방지
- 광양~전주간 고속도로를 '10년까지, 광양~구례간 고속화국도를 '07년까지 완공하고, 전라선 익산~순천 구간 154km를 '06년까지 전철화, 순천~여수 구간 40km를 '08년까지 개량
- 광양항 서측인입철도(7.0km) 조성에 1,762억원을 투입 '08년까지 완공, 권부두서측배후도로(11.4km, 권부두~광양IC를 연결) 및 이와 목포~광양간 고속도로를 연계시키는 세풍~월전 구간(국도2호선)을 '07년까지 완공
- 여수~순천간 국도 17호선,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, 갈사만진입도로, 반송~석재간 국도2호선 등 구역내 간선도로 지속 확충

④ 읍촌1산단 활성화

- 읍촌1산단 277만평중 50만평을 '06년까지 우선개발하고, 야나세, 교리스 등 일본계 조선기자재 기업과 국내 중형 조선소 및 관련 기자재 생산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유치 추진
- 정부는 '04년 하반기 해당지역을 관세자유지역 및 임대산업

단지로 동시 지정하고, 전남도는 전기, 통신, 상하수도 등 단지내 기반시설을 지원하며, 개발대행자는 나머지 80만평에 대한 조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함

⑤ 배후 신도시 조성

- '06년까지 신대지구(88만평)에 외국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, 세계적 수준의 외국병원, 학교를 유치하여 광양만권FEZ를 외국인투자선호지역으로 조성
- 주거, 의료, 교육, R&D사업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명성의 Developer를 모색중에 있으며(현재 호주계 은행과 접촉), '04.4까지 Target 병원·학교를 선정하여 유치 추진

⑥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의 효율화

-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, 구역내 내·외국인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국가위임·광역·기초 사무를 통합처리
- 구역청은 각종법령 및 공문서를 외국어(영·중·일)로 제공하고,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Shadow Service 제공 및 구역내 외국인 가구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
- 외국인, 민간투자전문가를 적극 충원하고,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공

※ 기타주친과제

- 화양지구(299만평)를 국제해양리조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(주)일상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해당부지 130만평을 기매입
-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목표로, 올해 정부방침을 확정하고,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'06년부터 BIE회원국을 상대로 유치활동 전개. 광양만권의 브랜드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관광

허브화하는 효과 발생

- 갈사만매립지 및 대송산업단지는 조선·광양제철 연관사업 단지로 개발하고, 이를 지원하는 관광·레저·주거단지를 두우·덕천배후단지에 조성

(3) 기대효과

- '20년까지 구역조성과 상부건축물, 광역인프라조성에 총66조원이 투입되어 총105조원의 생산유발효과, 44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하고, 16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(국토연구원)
-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적인 경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여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진입하게하는 국가경제성장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

보도자료 생산과 :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TEL : 2110-2595

(과장 오운열, 사무관 홍삼기)

재정경제부 공보관